

주간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전남농업

VOL. 229

2019년 4월 셋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기원 곤충 분말 첨가한 뱀장어 사료 개발 박차
정책동향 냄새없는 고품질 퇴액비로 자연순환농업 구축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고구마 우량종묘 무상 공급
해외 농업정보 고혈압이라면 내게 맡겨라! 일본 시장의 핫 아이템 들기름!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성황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4 ~ 11도, 최고기온 : 17 ~ 21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2 ~ 6mm)보다 비슷하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건고추 생산전망 및 가격전망
- ▶ 마늘 생산전망 및 가격전망
- ▶ 양파 생산전망 및 가격전망
- ▶ 대파 생산전망 및 가격동향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전남농기원, 곤충 분말 첨가한 뱀장어 사료 개발에 박차
- ▶ 법씨 소독 '물과 법씨 양' 지키는 것 중요

- ▶ 떡볶이 떡 냉장 아닌 ‘상온유통’으로 수출길 넓힌다
- ▶ 맥류 붉은곰팡이병, 이삭 패서 거둔 후까지 관리해야
- ▶ 성공적인 ‘인삼 논 재배’, 예정지 관리부터
- ▶ 잡초, ‘발생 초기’에 알맞은 제초제 뿌려야 효과
- ▶ 벼흰잎마름병균 발현과 분비 조절 기술 개발
- ▶ 약용작물 ‘하수오’ 슈퍼박테리아 내성 억제에 효과
- ▶ 고구마 조기 재배, 보온과 품종 선택이 중요

5. 정책 동향 27

- ▶ 냄새 없는 고품질 퇴액비로 자연순환농업 구축
- ▶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4.8~5월말) 운영
- ▶ 2019년 공공비축용 벼를 법시 파종 전에 지역과 품종 반드시 확인 하세요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0

- ▶ 여수시, 고구마 우량종묘 무상 공급
- ▶ 곡성군, 명품쌀 ‘백세미’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 화순군, 벼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 사용하세요!
- ▶ 해남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 ▶ 영암군, 스마트팜 육성지원 적극 나서
-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봄철 양봉 기술교육 실시

-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맥류 붉은곰팡이병 예방 총력
- ▶ 영광군, 지역특화품목(블루베리)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실시
- ▶ 장성군, ‘논 타작물 재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 진도군, 저비용 친환경 법씨종자 소독법 보급
- ▶ 진도군, 아열대과수 ‘애플망고’ 시범 사업 추진

7. 해외 농업정보 41

- ▶ 고혈압이라면 내게 맡겨라! 일본 시장의 핫 이이템 들기름!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4. 15. 시카고 선물거래소)

8.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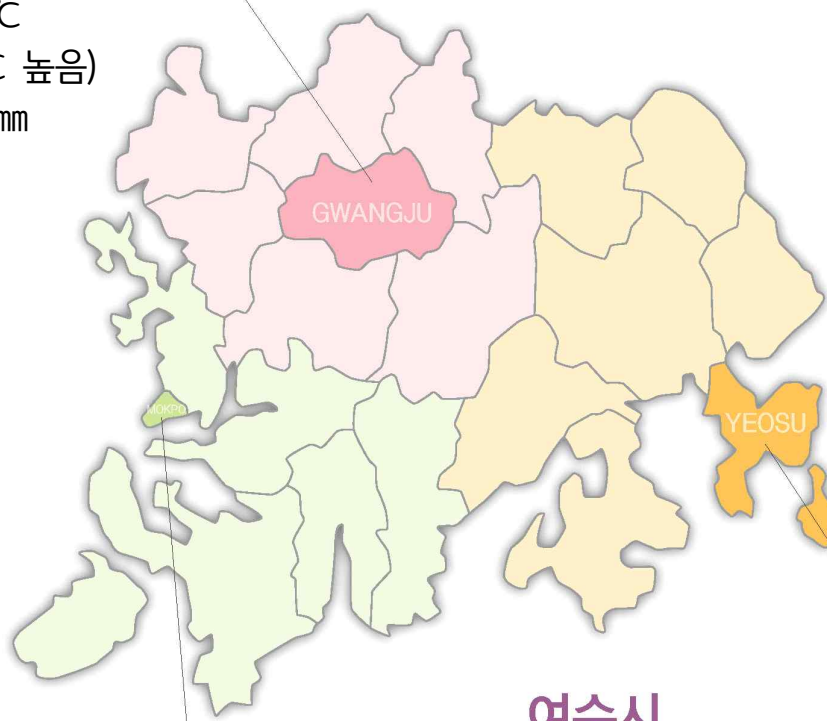
- ▶ “가심비 높은 농식품 한 자리에서 만나세요”
- ▶ 시장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 한자리에
- ▶ 강진에 흑염소 전문도축장 개장
- ▶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실천 결의대회
- ▶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성황
- ▶ 전남농기원, 딸기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기술 현장간담회 성황

9. 농식품 빅데이터(정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50

- ▶ 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4.5℃
(평년대비 0.8℃ 높음)
- 최고기온 : 20.4℃
(평년대비 0.1℃ 높음)
- 최저기온 : 8.6℃
(평년대비 0.7℃ 높음)
- 강 수 량 : 3.6mm



목포시

- 평균기온 : 13.6℃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17.9℃
(평년대비 0.6℃ 낮음)
- 최저기온 : 9.4℃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2.6mm

여수시

- 평균기온 : 14.7℃
(평년대비 1.0℃ 높음)
- 최고기온 : 18.6℃
(평년대비 0.7℃ 높음)
- 최저기온 : 10.9℃
(평년대비 0.7℃ 높음)
- 강 수 량 : 4.1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고추 생산전망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2019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 평년보다 감소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3. 20.), 2019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2018년산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배면적함수 분석결과, 2019년산 고추재배면적은 2018년산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농업관측본부 조사치와 모형 추정결과 2019년산 재배면적은 2만 9,450~3만 240ha로 전년보다는 2~5% 증가하나, 평년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까지 육묘 생육상황은 기상여건 호조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묘 판매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금년산 면적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본격적인 정식이 시작되면 재배면적 변동 폭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 가격전망 : 4월 가격 전년 대비 보합세 전망

- 4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기온 상승으로 농가의 가저장된 건고추가 출하되나, 중도매인들의 향후 가격 상승기대에 의한 출하조절로 전년과 비슷한 11,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마늘 생산전망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2019년산 마늘 생산량 평년 대비 증가 전망

- 겨울철의 동해와 강우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했던 전년 동기와 달리, 금년 작황은 생육기 기상 호조로 전년과 평년보다 좋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전년산 생육기 동해 및 가뭄 피해가 발생했던 난지형 마늘 생육 상황은 금년 기상여건 호조에 따라 전년과 평년 대비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평년의 단수를 감안한 2019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평년 대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 기상호조 상황 지속 시, 2019년산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확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생육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기상 변화에 따라 생산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 가격전망 : 4월 가격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

- 4월 깐마늘 평균도매가격은 저장마늘 재고량이 적으나, 품위가 낮은데다 2019년산 마늘 생산량 증가 전망 영향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생산전망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조생종양파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 전망

- 2019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7% 내외 감소 하지만, 평년보다는 4% 정도 증가한 2만 1,740~2만 2,380ha로 추정된다.
- 품종별로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이 평년보다 각각 12%, 3%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산 조생종양파 생육은 정식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아 평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까지의 생육을 감안한 조생종양파 단수는 평년 대비 2% 내외 증가한 6,474~6,661kg/10a로 전망된다.
- 추정 재배면적과 단수를 적용한 2019년산 조생종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15% 내외 많은 18만 6천~19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시장격리 된 211ha를 제외할 경우 2019년산 조생종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6% 정도 증가한 17만2천~18만 3천 톤으로 예상된다.
- 다만, 조생종양파 생산량은 4~5월 기상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 가격전망 : 4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4월 양파 공급량은 조생종양파 생산량 증가로 평년 보다 2,600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가격은 조생종 햇양파 출하로 전월(700원)보다 상승하겠으나, 평년보다 공급량이 증가하여 평년(880원) 대비 낮은 상품 kg당 800원 내외로 예상된다.

대파 생산전망 및 가격동향

■ 생산전망 : 5~6월 출하면적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5월 대파 출하면적은 전남지역 겨울대파 포전 정리로 전년보다 6% 감소할 전망이다.
- 6월 출하면적은 전년 출하기 및 금년 정식기 가격약세로 시설 봄대파 주산지인 경기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2% 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전년 정식기 가격 강세로 충청과 전북의 봄 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생육이 전년보다 좋아 6월 이후 출하량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 가격동향 : 3월 가격 전년 및 전월보다 낮아

- 대파 3월 도매가격은 전년 및 전월 대비 각각 36%, 26% 낮은 820원/kg(상품)이었다.
- 금년 가격은 겨울철 기상호조로 작황이 좋아, 3월 하순부터 가격이 낮아졌던 전년보다 이른 시기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4. 15. 기준 / 단위: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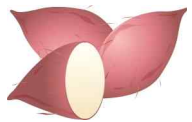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0kg	49,240	49,380	↑	1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440	44,720	40,200	↑	22.5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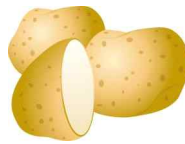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35kg	190,200	189,200	↑	8.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7,800	175,800	154,333	↑	23.2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kg	36,000	35,400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480	38,600	27,880	↑	29.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0kg	63,000	65,400	↓	5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560	127,900	35,240	↑	78.8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kg	3,340	3,340	↓	5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92	8,325	6,808	↓	50.9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8kg	4,000	4,000	↓	3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20	5,725	4,827	↓	17.1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0개	36,000	36,333	↓	1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667	43,500	42,870	↓	16.0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0개	13,200	13,600	↓	3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120	19,850	17,723	↓	25.5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60kg	1,157,200	1,157,2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77,200	1,150,000	736,000	↑	57.2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kg	41,200	44,400	↑	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1,560	38,800	49,443	↓	16.7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0kg	135,000	135,000	↓	1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1,000	150,000	150,000	↓	10.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0kg	17,100	16,500	↑	17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240	13,500	17,924	↓	4.6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0kg	28,200	27,800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120	29,000	27,040	↑	4.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kg	1,180	1,180	↓	7.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0	1,280	1,685	↓	30.0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5kg	23,000	25,800	↓	1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520	26,200	26,080	↓	11.8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kg	14,800	15,400	↓	1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800	16,800	15,873	↓	6.8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kg	30,200	30,800	↑	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400	27,700	30,633	↓	1.4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5kg	25,400	25,800	↑	1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60	21,350	22,933	↑	10.8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kg	39,200	40,0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560	40,850	40,928	↓	4.2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5kg	49,400	51,600	↑	10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760	38,400	41,700	↑	18.5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kg	35,800	35,400	↑	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480	34,800	34,947	↑	2.4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0g	7,800	7,895	↓	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600	8,148	7,223	↑	8.0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kg	5,436	5,349	↑	1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90	4,887	5,445	↓	0.2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30kg	496,200	496,200	↓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200	498,000	526,400	↓	5.7

느타리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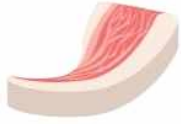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kg	12,400	11,400	↓	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080	13,550	12,847	↓	3.5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2kg	7,200	7,300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800	7,100	7,897	↓	8.8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00g	1,909	1,758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91	1,833	1,891	↑	1.0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30개	5,164	5,082	↑	2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38	4,149	5,742	↓	10.1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15)	1주일전 (4/08)	전년대비	
1L	2,622	2,620	↑	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7	2,516	2,541	↑	3.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4. 15.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25	5,665	5,720	↓ 0.7	↓ 1.7
거세	6,846	6,864	6,871	↓ 0.3	↓ 0.4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16	3,121	3,234	↓ 0.2	↓ 3.6
수	3,727	3,701	3,851	↑ 1	↓ 3.9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14	3,678	3,60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7	↑ 0.1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38	426	23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8	↑ 84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95	389	38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5	↑ 2.9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479	1,700	1,24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0	↑ 18.5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33	954	82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8.3	↑ 25.1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3,13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29.8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전남농기원, 곤충 분말 첨가한 뱀장어 사료 개발에 박차

- 아메리카왕거저리 분말 첨가로 기능성분·체중·출하시기 등 연구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잠업연구소는 산업곤충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왕거저리’ 분말을 첨가한 어류사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아메리카왕거저리는 식품공전에 식용곤충으로 등재된 갈색거저리와 비슷한 곤충으로 단백질이 19% 이상 함유되어 있고 이밖에도, 아미노산과 지방·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 응용범위가 넓은 곤충이다.
- 거저리 성분 중, 이와 뼈를 구성하는 포스포러스, 간에서 작용하는 콜린, 피부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5 그리고 적혈구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2 성분의 경우에는 달걀보다 거저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섬유질 양 역시 브로콜리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산둥농업대학 자료에 따르면, 거저리 단백질을 이용한 가축사료는 소량으로도 동물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동물체 기능을 개선시켜 유해물질의 생장, 번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서도 민물고기 사료 중 25% 정도를 아메리카왕거저리로 대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다.

-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그동안 아메리카왕거저리 대량 사육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배합사료와 밀기울을 먹였을 때 발육기간이 단축되었고, 보조 먹이원은 대두분과 어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류사료 개발을 위한 예비시험에서는 기존 치어용 발효사료에 건조한 아메리카왕거저리 분말을 첨가하여 뱀장어를 사육하였을 때 치어의 무게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구희연 연구사는“아메리카왕거저리 분말을 첨가한 어류사료 개발을 위해 뱀장어를 성체가 될 때까지 사육하면서 크기와 무게 등을 조사하여 출하시기를 단축시키고, 뱀장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성분과 기능성분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어류 생산량은 지난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뱀장어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기능성 대체사료가 개발된다면 뱀장어 양식어가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왕거저리 사육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 법씨 소독 '물과 법씨 양' 지키는 것 중요

- 농촌진흥청, 벼 키다리병 방제 위한 올바른 법씨소독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법씨 소독 방법을 소개했다.
- 벼 키다리병은 이삭이 팠 때 감염된 종자가 1차적인 전염원이 되는 종자전염병으로, 못자리부터 본답 초기와 중기에 많이 발생해 매년 벼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종자 소독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으로, 법씨 소독 관련 기술 개발과 교육, 홍보로 못자리에서의 벼 키다리병 발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병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본답에서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법씨 소독을 할 때 먼저 소금물가리기를 통해 쪽정이 벼를 골라내면 소독 효과를 20~30% 높일 수 있다.
- 종자의 까락(까끄라기)을 없앤 뒤 메벼는 물 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 20L당 소금 1.3kg을 녹인 다음 법씨를 담근다. 물에 뜬 법씨는 골라내고 가라앉은 법씨는 깨끗한 물에 2~3회 씻어 말린다.
- 온탕 소독은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씨 소독 방법으로 60℃의 물 300L당 법씨 30kg을 10분 동안 담갔다가 꺼내 바로 식혀주는 것이다. 물과 종자의 양 등 조건만 제대로 지킨다면 9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단, 고온에 민감한 '고운벼', '삼광벼', '운광벼', '일미벼', '풍미벼',

'동진1호', '서안1호', '신운봉1호' 등은 위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법씨 소독 이후에도 적정 파종량을 지키고 고온 육묘를 하지 않는 등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 소금물가리거나 온탕 소독을 마친 법씨는 적용 약제별로 희석 배수에 맞게 희석한 다음 약제 20L당 법씨 10kg을 30℃의 온도로 맞춰 48시간 담가두면 된다.
- 병 발생이 심했던 지역에서 생산한 벼를 종자로 사용할 때는 우선 30℃ 물에 침투이행성 약제를 섞고 종자를 넣어 48시간 담갔다가 싹이 트기 시작할 때 다른 약제로 바꿔 24시간 담가두거나 습분의 처리 뒤 바로 파종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해마다 같은 계통의 약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어 2~3년 주기로 약제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벼 종자소독용 살균제는 현재 34품목 45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 벼꽃이 피는 시기에 병원균 포자가 바람에 날려 감염 종자가 되기 때문에 건전 종자 생산을 위해 본답에서 인근 농가와 공동방제를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최근 본답의 벼 키다리병 발생이 꾸준히 늘어 종자감염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종자를 과도하게 겹쳐 쌓으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니 물과 종자의 양을 반드시 지켜 법씨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떡볶이 떡 냉장 아닌 ‘상온유통’으로 수출길 넓힌다

- 농촌진흥청, 떡볶이 떡 상온서 8개월까지 유통 가능한 기술 개발 -

- 떡볶이 떡이나 떡국 떡의 유통기한을 상온에서 8개월까지 늘리는 기술이 개발돼 내수 기반을 넓히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강원대학교와 함께 쌀가공품인 떡볶이 떡의 유통기한을 냉장 1개월에서 상온 8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 떡류는 수분 함량이 높은 상태에서 유통돼 효모와 곰팡이 등이 증식할 수 있어 표면 살균 처리한 뒤 진공 포장해 냉장유통을 하고 있지만 저장성이 크게 연장되지 않았다.
- 이번에 개발한 상온유통 연장기술은 떡볶이 떡의 제조공정(쌀가루 → 증자 → 압출·성형 → 절단 → 냉각 → 산 침지 → 포장 → 살균 → 냉각) 단계별로 미생물 저감화 요소를 최적화한 것으로, 복합 산미료의 구성, 농도, pH, 침지시간을 최적화한 산 침지와 가열살균 복합공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미생물 오염을 차단시켰다.
- 우선 최적화한 조건으로 산 침지를 한 결과, 떡볶이 떡의 맛과 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초기 일반세균류, 진균류,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 또한 포장 후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억제를 위해 떡볶이 떡의 형상과 조직감 변화를 최소화하는 살균공정을 과학적으로 구명했다.

- 이는 떡볶이 떡을 살균할 때 떡의 형상과 포장 형태, 포장단위별 열 침투 곡선을 확인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거쳐 냉점(냉점은 가열살균 중 외부의 열이 전도를 통해 떡에 전달 시 가장 온도가 낮은 부위, 살균조건 도출 기준)을 도출한 후 냉점과 식중독 위해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를 기준으로 살균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과 관련해 26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떡 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실용화 촉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 관련 업체들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우리나라 쌀 떡볶이의 품질 경쟁력이 확보되고, 수출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수출현장 적용과 업체 규모에 따른 표준화 모델 개발 등 현장실증 연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김행란 부장은 "우리나라 떡(떡볶이 떡) 산업의 발전에 상온유통 기술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떡볶이 떡이 수출돼 쌀 소비 촉진은 물론 떡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맥류 붉은곰팡이병, 이삭 패서 거둔 후까지 관리해야

- 4월 · 5월 비 잦으면 감염 늘 듯... 예방 지침 잘 따라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맥류의 이삭이 패는 시기(출수기) 후에 발생하기 쉬운 붉은곰팡이병과 독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지침을 소개했다.
- 붉은곰팡이병은 곡류가 붉은곰팡이에 감염됐을 때 발생하며, 수량이 줄고 사람과 가축에 구토나 복통 등 중독증을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한다.
- 출수기와 유숙기(출수 후 개화수정이 완료돼 알곡이 차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4월 중하순부터 5월 중 기온이 15~30℃, 상대습도 80% 이상인 날이 계속될 때 감염되기 쉽다.
- 특히, 지난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해 겨울을 난 병원균의 밀도가 높아 올해 출수기 이후에 비가 잦으면 붉은곰팡이병 발생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 독소가 발생하면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인균인 붉은곰팡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재배기뿐만 아니라 수확 후에도 예방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 먼저, 출수기 전후로 비 예보가 있으면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캡탄 수화제 등 보리, 밀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뿌려준다.
- 재배지 습도가 오르지 않도록 배수로를 깊이 파야 한다. 배수가 나쁜 토질은 30cm 이상 파내야 효과가 있다.
- 붉은곰팡이는 수확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맑고 건조한 날 수확하며, 거둔 즉시 건조한다. 잘 말린 후에는 손상, 미성숙, 병든 낱알을 골라내 깨끗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저장고에 보관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성공적인 ‘인삼 논 재배’, 예정지 관리부터

- 재배 적지 선정 후 토양화학성 검사, 예정지 관리 시작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논에서 인삼 재배 시 생리 장애는 줄이고 수량은 늘릴 수 있는 예정지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 연작장애로 인삼을 처음 재배하는 땅이 부족해지면서 논에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늘고 있다.
- 논토양은 대체로 비옥도가 높고 담수여서 연작장애를 일으키는 뿌리썩음병의 병원균 밀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물 빠짐이 좋지 않아 습해를 입기 쉽고 벼 재배 시 부린 화학비료가 남아 황증이나 적변 등 생리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논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에는 무엇보다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보다 지대가 높아 침수 우려가 적고 물 빠짐이 양호한 곳을 선택한 후 예정지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에 들어가 '토양환경지도-토양특성'에서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재배지가 선정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해 토양화학성 검사를 받은 후 염류농도(EC), 토양산도(pH), 질산태질소(NO3), 유기물(OM) 함량 등을 확인한다.
- 논토양 예정지 관리 시 유기물 종류를 잘 선택하면 수량을 늘리고 생리장애를 줄일 수 있다.
- 식물성 유기물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에선 가축분 퇴비를 이용해 논토양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때 가축분 퇴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염류 농도가 높아져 인삼 생육에 나빠지고 특히 적변 등 생리장애 발생이 증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잡초, ‘발생 초기’에 알맞은 제초제 뿌려야 효과

- 농촌진흥청,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 효율적 방제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를 효율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는 1999년 충남 서산에서 물옥잠과 물달개비가 처음 보고된 후 종류와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 2017~2018년 전국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 발생 면적을 조사한 결과, 국내 총 논 면적의 59.6%(약 44만 7,000ha)에서 최소 1종 이상의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2012년 (22.1%)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것이다.
-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의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잡초 발생 시기에 맞춰 정확한 제초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우선, 씨레질할 때 벤조비사이클론액상수화제, 옥사디아존유제, 옥사디아길유제, 뷰타클로르캡슐현탁제 등 이앙 전 처리제나 초기 처리제를 사용하면 제초제 저항성 잡초뿐만 아니라 종자로 번식하는 일반 잡초 발생도 줄일 수 있다.
- 이앙 후 10~12일 또는 이앙 후 15일, 20일에는 브로모뷰타이드, 메소트리온, 메페나셋, 펜트라자마이드 등의 제초 성분이 혼합된 초기, 중기 제초제를 추가로 뿌려주면 좋다.
- 1차 처리 후 살아남은 잡초에는 경엽처리 제초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논피는 사이할로포프뷰틸유제 등이, 올챙이고랭이는 벤타존합제 등이 효과적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벼흰잎마름병균 발현과 분비 조절 기술 개발

- 병원성 본능 깨우는 기술... 병 발생 제어 가능성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벼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균성 병원균인 벼흰잎마름병균의 병원성 인자 발현과 분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벼흰잎마름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잎이 흰색 또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피해 규모도 한 해 1,000억 원에 달한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벼흰잎마름병균이 다른 식물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고 벼의 잎 조직을 인식했을 때만 스위치를 켜듯 병원성 인자를 생성·분비하고 공격하는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 다시 말해, 병원성 인자의 생성과 분비를 방해하거나 교란시켜 병 발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원리다.
- 이 기술은 특허출원(벼흰잎마름병균에서 병원성 단백질 발현 및 분비를 유도하는 방법)을 마치고 국내 생명공학 기업과 기술 이전을 협의 중이다.
- 앞서 농촌진흥청은 2005년 세계 최초로 벼흰잎마름병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발표한 이래 후속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 2016년에는 벼흰잎마름병균이 기주를 인식했을 때 시간별로 어떤 순서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지 연구를 완료했으며, 이 내용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BMC 유전체학(BMC Genomics)' 2016년 5월호에 게재됐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약용작물 ‘하수오’ 슈퍼박테리아 내성 억제에 효과

- 내성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 막아... 천연 항균제 개발에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약용작물 '하수오'가 슈퍼박테리아인 황색포도상구균(MRSA1)의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에서 많이 분리되는 의료 관련 감염 원인균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폐렴·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기회 감염균으로 여러 항생 물질에 내성이 있다.
- 법정 감염병 중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 하나인 반코마이신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내성과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제한적이다.
- 이번 연구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내성 유전자를 억제하기 위해 약용작물 후보 물질 10종을 선별, 가장 우수한 활성을 보인 하수오의 '레인(rhein)' 성분으로 진행했다.
- 또한, 레인이 항생제의 세포벽 형성 억제 능력을 저해하는 특정 단백질 유전자와 항생제를 파괴할 수 있는 분해효소(β -lactamase) 유전자 발현을 각각 최대 94%, 88% 억제함을 확인했다(최소 억제 농도).
- 이번 연구는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천연물 기반 치료제 개발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앞으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후속 연구를 통해 하수오를 천연 항균제와 항생물질 보조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고구마 조기 재배, 보온과 품종 선택이 중요

- 땅 속 온도 낮을 때 비닐 덮어 보온, '풍원미' · '진을미' 추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8월 상순에 햇고구마 출하를 원하는 농가의 올바른 재배 요령을 소개했다.
- 먼저, 고구마 묘를 심기 전 조기 재배를 위한 본밭을 준비해야 한다.
- 보통기 재배와 마찬가지로 표준 거름주기를 하고, 고구마 전용 토양 살충제를 뿌린 뒤 경운하고, 두둑 성형기로 이랑을 만든다.
- 심는 방법은 7~9마디 정도의 튼튼하고 병이 없는 묘를 수평으로 눕혀서 두둑 위쪽에 3cm~5cm 깊이로 심는다.
- 심을 때는 20~25cm 간격이 적당하며, 묘의 머리쪽 2~3마디는 묻히지 않게 한다.
- 밭에 뿌리가 내리려면 땅 속 온도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4월 상순 남부지역의 땅 속 온도는 13℃ 이하이므로 묘를 먼저 심고 비닐을 덮어 보온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본밭에 심기가 끝나면 트랙터나 관리기 부착용 비닐 피복기를 사용해 덮어준다. 이후 두둑 위로 흙을 덮으면 저온기에는 보온 효과가 있고, 한낮에는 직사광선에 의한 고온 장애를 막을 수 있다.
- 묘를 심은 후 2주 정도면 뿌리가 내리므로 묘를 비닐 밖으로 꺼내 초기 생육이 잘 되도록 한다. 너무 늦게 꺼내면 한낮에 고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아울러, 서리가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서 묘를 꺼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냄새 없는 고품질 퇴액비로 자연순환농업 구축

- 전남도, 올해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124억 지원 -

- 전라남도는 올해 국비 43억 등 총 사업비 124억 원을 들여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와 액비살포비, 악취 저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주요 지원사업은 퇴비사 설치 및 퇴·액비화 처리 시설·장비 등 개별처리시설 지원 36억 원,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14억 원, 액비 살포비 36억 원, 액비유통센터 8억 원,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30억 원 등이다.
- 또한 축산 악취를 줄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친다. 닭, 오리 축산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 악취저감제 공급에 48억 원, 개방된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를 밀폐시키고 미생물 살포용 기계장비 또는 살포시스템을 지원해 악취를 줄이는데 15억 원을 투입한다.
- 새 정부 국정과제이자 농식품부 정책사업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이미 지정받은 축산농가 258호의 경우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 현재 전남지역에는 11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대량 수거해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해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4.8~5월말) 운영

-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강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등에 총력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 2.19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화된 국경검역을 실시해 왔다.
-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4.8~5.31)이 긴요한 상황이다.
-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공공비축용 벼를 법씨 파종 전에 지역과 품종 반드시 확인 하세요

- 법씨 파종 전에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반드시 확인 필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쌀 적정생산 유도,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별 매입 품종 외 벼 수매를 막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8년부터 추진한 품종검정제를 엄격히 추진한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수확 품종(새누리, 운광, 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품종이다.
- 따라서, 정부가 '19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이번에 예고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품종 이외의 품종이 출하되어 적발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공비축용 미곡으로 허용된 품종이 아닌 벼의 출하를 방지하고자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약 5%)하고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하여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농식품부는 2019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법씨 파종 전에 매입 품종을 시·군, 읍·면·동에 반드시 확인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하여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여수시, 고구마 우량종묘 무상 공급

- 풍원미,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줄기묘 9만 주...15일부터 선착순 접수 -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고구마 우량종묘 9만 주를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 공급 품종은 3종으로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고 조기출하가 가능한 ‘풍원미’, 수분과 당분이 풍부한 ‘호박고구마’, 당분이 풍부하고 입고병에 강한 ‘꿀고구마’다.
- 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고구마 줄기묘를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농가당 공급량을 제한해 다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 돌산읍 주민은 농업인상담소에, 면 단위 주민은 면사무소 산업팀에,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 신청하면 된다.
- 공급은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1주 간격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며, 공급과 함께 재배 기술 교육도 병행한다.
- 시 관계자는 “조직배양묘 분양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 농업인이 전국 최고의 명품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배양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곡성군, 명품쌀 ‘백세미’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5일 석곡농협 대강당에서 백세미 계약 재배 농가 및 농협 임직원 230명이 참석해 백세미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의대회는 백세미를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 쌀로 키워내기 위한 농협과 계약 재배 농업인들의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참석 농가들은 친환경농업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고품질 백세미 생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 석곡농협 한승준 신임 조합장은 “백세미 생산과 판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전국 최고의 수매가격으로 생산농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울시 양재동 하나로 클럽 이상문 양곡부장은 “백세미가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가장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쌀이며, 금년 중으로 친환경 곡류 부분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벼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 사용하세요!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의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벼 일반 재배농가 대상으로 3,193ha, 400백만원을 지원하여,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화순군에 따르면 2018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읍면선정협의회에서 1종의 약제를 선택하여 입찰을 통한 배부로 지원하였지만, 올해는 농가 신청면적에 따라 금액이 명시된 농약 교환권을 발행하여 농가 자율적으로 농약 판매업체에서 약제를 선택 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고 한다.
- 교환권은 읍면을 통해 배부하였으며, 관내 농약 판매업체에서 4월 30일까지 육묘상자처리제로 교환하여 사용하면 된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 벼농사를 지원하고, 관내 농약 판매업체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병해충은 초기방제가 중요하며, 벼 육묘상자처리제는 도열병, 흰잎마름병, 물바구미, 애멸구 등 본답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으로, 벼 모내기 직전 모판에 정량(1kg/ 10a) 사용으로 방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해남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 12종 농기계 대상, 농업인은 20%만 부담하세요 -

- 해남군은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농작업 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한다.
-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사고, 적재 농산물 등 사고시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농기계에 보험을 적용해 보상해 주게 된다.
- 해남군은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에 이어 올해 신규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존 정부 지원 50%외에 군비로 30%를 추가 지원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 보험가입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주소지 지역 농협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군 관계자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대형화 되는 농기계로 인해 안전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해남군

영암군, 스마트팜 육성지원 적극 나서

- 현장설명회에서 스마트팜 필요성의 공감 형성 -

- 영암군은 8일 서호면 함형국 스마트팜농장에서 서삼석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 농촌진흥청장, 전남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농장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온실환경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 제어되고, 특히, 원거리에서도 농장주가 농장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장면을 보고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 영암군은 최근 정보통신융복합 기술농업 붐을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팜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군은 시설하우스 농사를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에 정착하여 스마트농업을 시작하려는 예비농업인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커 부담스러워 하는데, 군에서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저비용으로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영암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봄철 양봉 기술교육 실시

-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양봉연구회원 및 실버양봉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봄철 양봉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실용화 현장 컨설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날 야생양봉 전문가 오금석 강사는 봄철 꿀벌 사양관리법, 표준벌통 다단계상 관리요령 등을 교육했다.
- 특히, 이론중심의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주로 교육하면서 농가의 큰 호응을 받았다.
- 센터 관계자는 “양봉인구가 늘고 더 많은 고품질 꿀을 얻기 위해서는 밀원 조성이 시급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밀원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고품질 벌꿀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맥류 붉은곰팡이병 예방 총력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항만)가 지역 농가에 맥류 붉은곰팡이병 예방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 센터는 지난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올해 출수기 이후 붉은곰팡이병 발생도 늘 것으로 보고 방역방제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각 농가에 예방지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붉은곰팡이병은 출수기와 유숙기에 해당하는 4월 중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주로 발생하며 미숙립 발생, 발아율 저하 등 조사료 가치를 떨어뜨린다.
- 특히 사람과 가축에 구토나 복통 등 중독증을 유발하는 독소가 생성되고 또 독소제거도 쉽지 않아 재배기뿐 아니라 수확 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센터는 비 예보시 디페노코아졸 등 등록 약제 적기 살포, 1차 방제 후 10일 이내 2차 방제, 완숙 후 완전 건조 및 탈곡 등의 농촌진흥청 지침을 지역 농가에 소개하고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김동표 기술보급과장은 “지난해 붉은곰팡이병이 대유행을 하면서 지역 농가에 시름이 깊었다”며, “예방을 위해선 각 농가의 철저한 지침 준수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영광군, 지역특화품목(블루베리)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실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8일 염산면 닥터베리팜에서 ‘지역특화품목(블루베리)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 이번 컨설팅은 블루베리 농가와 교육 희망 농업인 30여 명이 참석하여 4차산업 혁명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농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농업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산물 안전생산 및 소득향상 등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 이날 블루베리 현장 컨설팅 교육은 한국생태도시연구소 이기상 박사의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과 막걸리트랩 만들기’, 농업회사법인 농부애아들 김용환 대표의 ‘경영 컨설팅’, 농수산넷 이홍래 대표의 ‘유통·마케팅 컨설팅’을 병행하여 추진했다.
- 특히 이번교육은 이론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농업인과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 및 토론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해 주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출처 : 영광군

장성군, ‘논 타작물 재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논 타작물 재배 지원단가 인상, 논콩 전량 수매 등...쌀 수급안정에 만전 -

- 장성군이 지속되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총력을 펼친다.
- 장성군은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화와 식량작물 수급 조절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당초 10억여 원의 예산에 군비 1억5천여만 원을 추가하여 총 11억5천여만 원을 ‘논 타작물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 군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을 297ha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면적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원한다.
- 타작물 대상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해당된다. 올해 ha당 지원단가는 조사료 43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이며, 휴경 시 280만 원이다.
- 특히 판로확보가 용이하고 벼를 재배할 때보다 소득이 높은 논콩과 조사료, 일반작물의 재배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품목 재배 시 30~70만 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이뿐만이 아니다. 군은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게 ha당 공공비축미 65포 내외를 우선배정하고 농기계 지원 등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 또한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한 논콩은 농협을 통해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도 특등을 신설해 kg당 4,500원을 지급한다.

*출처 : 장성군

진도군, 저비용 친환경 범씨종자 소독법 보급

- 벼농사 시작은 범씨소독부터 ! -

-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시기에 앞서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고 튼튼한 모를 기를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친환경 범씨소독 연시회를 실시하였다.
- 범씨 소독은 벼농사의 반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종자전염으로 발생하는 도열병, 키다리병, 세균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연시회에서는 저비용 종자소독 기술인 온탕침법과 이를 결합한 석회유황 체계처리 소독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 소독법인 키다리병 등 방제효과가 99%에 이르고, 약제 저항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독비용도 일반관행 종자소독약의 49% 절감 할 수 있는 기술이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벼 재배 농업인들에게 튼튼한 육묘관리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저비용 친환경 종자소독을 반드시 실천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읍·면별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연시회를 통해 논타작물 재배, 쌀 적정생산 3저3고 실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중점 홍보하여 쌀 공급 과잉,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출처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진도군, 아열대과수 ‘애플망고’ 시범 사업 추진

- 진도군이 기후변화와 아열대과일 소비급증에 발맞춰 아열대과수 ‘애플망고’ 첫 도입,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13년부터 기후 온난화 대응작목의 시험재배를 시도한 진도군은 지역 적응이 뛰어나고 맛과 향이 좋은 애플망고를 도입해 시험재배를 추진해 왔다.
- 진도군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억 원(국비1억 원, 군비1억 원)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4억원 확보로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애플망고 생산 완전체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애플망고 재배 시범사업은 내재해형 연동시설하우스 4.950㎡(1,500평), 묘목 300주(1주/15만 원), 히트펌프와 관정, 난방기 등 가온시설·장비 등이 있다.
- 또 아열대작물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유통시설, 소비자 구매 패턴 조사를 위한 농업인과 농협 등 정기 협의체를 마련하고 애플망고 재배기술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담당 관계자는 “진도 지역은 일조시간이 길고 따뜻한 기후조건, 토양조건이 우수해 맛과 향이 국내 타지역, 외국산 망고보다 좋아 시장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아열대기후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진도군

고혈압이라면 내게 맡겨라! 일본 시장의 핫 아이템 들기름!

- aT도쿄지사는 지난 주, 일본의 식품시장에서 수출신화를 이룬 들기름의 또 한 번의 붐을 예고한바 있다. 바로 파급효과가 절대적인 일본 지상파의 건강 방송 프로그램에 들기름의 등장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 최고의 의사들이 총 등장한 시청률 넘버원 “명의의 THE 보증”에서는 “기름 대연구! 좋은 기름을 사용하여 건강해지자 스페셜”라는 주제로 기름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
- 방송 하루 만에 이미 반응이 뜨겁다. 들기름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수입업체에 의하면 방영이후 주문이 평소 2배 이상으로 증가세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로 갈 경우, 금년도 일본시장의 들기름 확대와 정착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히 된다.
-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국내산 제품으로 2015년 들기름 수요 증가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도 들기름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 이번 방송으로 들기름 관련 상품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것은 분명하다.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상품 개발로 들기름 본고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일본시장에서 또 한 번의 들기름 수출신화를 기대해 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4. 15.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선물가격, 환매수 및 기술매수로 인해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9% 상승했다. 시카고 거래소의 5월 연질적색 겨울 밀 WK9는 4센트 오른 부셸당 4.50-4.64달러에 장을 마쳤다. 일주일 동안, 그 계약은 전주대비 2% 상승한 후 3-3.25센트(0.7%) 하락했다. K.C.의 5월 겨울 밀 KWK9는 부셸당 4.25-4.34달러, MGEX 5월 봄밀 1MWEK9는 2센트 하락한 5.25-5.31달러에 장을 마쳤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3%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중서부지역의 악천후로 인한 농장의 작황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매수(short-covering)를 포함한 기술매수의 후반 라운드에서 최고치에 근접하며 상승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 최대 대두 구매국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될 조짐이 보이는 등 새로운 방향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거래소 선물은 완만하게 마감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가심비 높은 농식품 한 자리에서 만나세요”

- 11~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강소농 · 소비자 직거래 시장 열려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별 우수 강소농들의 판로 확보 지원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시장 모형(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직거래 시장형태인 '강소농 프리마켓'을 시범 운영한다.
- 이 자리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강소농대전'에서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 유통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린 다수의 강소농 사례를 바탕으로 강소농이 생산한 제품을 많은 소비자에게 선보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리며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 중 최고과정에 참여하는 20개 농가가 참여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음료제품과 과자·빵 등 후식에 어울리는 식품들을 선보인다.
- 특히, 홍시로 만든 탄산음료와 요거트, 옥수수 밀크잼, 마카롱 등 행사장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도 만날 수 있다.
-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강소농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강소농 기획전시관'이 문을 연다.
- 농촌진흥청 박경숙 지도정책과장은 "가심비 높은 농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시장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우수상품 품평회... 판로 개척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와 농업경영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농가형 가공상품 기업연계 품평회(이하 품평회)'를 개최 한다.
- 11일 농촌진흥청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품평회에는 전국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81개 우수 농업경영체의 가공 상품이 나온다.
- 출품된 상품들은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해외 수출기업 관계자, TV홈쇼핑업체 상품기획자(MD)들이 심사하며, 각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농업경영체는 유통기업에 입점 기회가 주어진다.
- 품평회에 참석한 농업경영체 대표들은 유통 전문가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1:1 맞춤 상담도 받게 된다.
- 상품평가를 담당하는 공영홈쇼핑 김병수 상품기획자(MD)는 "농업인이 제품 원료를 직접 재배·가공하고, 상품과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이야기도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품평회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촉(마케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강진에 흑염소 전문도축장 개장

- 가온축산에서 1일 30여 마리 위생적 공급...서남부권 농가 이용 편의 -

- 전라남도는 위생적 흑염소 고기의 시장 유통 활성화를 위한 흑염소 전문도축장이 11일 강진 성전면 산업단지에서 개장,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성전 산업단지의 흑염소 전문도축장은 그동안 가온축산 시험가동을 거쳤다. 이날부터 1일 30여 마리를 위생적으로 도축해 음식점에 공급하게 된다. 화순에 이어 강진에 2번째 전문도축장이 개장함으로써 서남부권 흑염소 사육농가들이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전남지역에서는 8만 마리의 흑염소를 사육, 전국(45만 마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 가온축산 도축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식 흑염소 전문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장을 갖추고 1일 250마리까지 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축장 옆에 흑염소 가공장을 구축, 양념육 등을 생산하고, 흑염소 농가를 위한 전문교육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흑염소 사육농가 및 중간 유통업자가 도축장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며 “흑염소 가격 하락으로 침체된 흑염소 농가에 유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실천 결의대회

- 전라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1일 강진 아트홀에서 쌀 전업농과 들녘경영체, 읍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 타작물 재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논 타작물 재배 실천 결의대회는 쌀 수급 안정과 콩 등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올해 1만 1천600h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이어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의 논 타작물 재배 추진상황 및 활성화 대책 설명, 전남농업기술원의 논콩 재배기술 교육이 실시됐다.
- 농식품부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전국 35만t 중 5만t을 ha(3천평)당 65포대 내외로 직접 배정기로 하고, 논콩에 대해 수매 등급 중 특등을 신설해 kg당 4천500원에 전량 수매기로 확정했다.
- 또 콩 재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 수확작업 기계화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29억 원을 확보해 10ha 이상 논콩 재배단지에 수확기 4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사료의 경우 ha당 430만 원, 콩은 325만 원, 기타작물은 340만 원, 휴경은 28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6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현황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자율적인 경영향상을 위해 올바른 회의 진행 요령, 당당, 정확, 따뜻한 스피치 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이어서 연합회에서는 2019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역량강화교육과 더불어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토론을 가졌다.
-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는 2008년에 창립되었으며, 쇼핑몰, 블로그, 모바일, SNS 등을 운영하면서 고객과 소통하고 있는 농업인 8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회원들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직거래 유통과 농업 정보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조동호 과장은 “연합회 임원들이 상호간의 소통 뿐만 아니라 기술원과의 더욱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연합회와 기술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딸기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기술 현장간담회 성황

- 장성 투베리 농원 딸기 관계자 100여명 참석 빅데이터 활용 기술 공유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장성 투베리 농원에서 딸기 생산성 향상 기술 발전방안 현장간담회를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최하였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유두석 장성군수, 딸기 재배 농업인, 산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양액 관리 및 스마트팜 발전 기술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회로 진행됐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영상 메시지 축사에서 “딸기 생산액이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했으며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농업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딸기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팜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수집분석·연구에 감사드리며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현장간담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통해 생육단계별 작물의 최적 환경을 밝혀 시설채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추후에는 자동화, 로봇을 추가한 한국형 스마트팜을 완성하여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농기원은 지난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 빅데이터팀과 공동으로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딸기, 토마토 등 4개 작목 55농가를 대상으로 환경 및 생육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오고 있다.
- 특히 2017년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로 토마토 생육단계별로 적합한 온도, 습도 및 양액관리로 재배 할 경우 10a(990㎡)당 평균 수량을 일반 재배 농가보다 최대 104%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시설채소 생육환경 등 다양한 농가단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으로 4차산업에 걸맞는 최첨단 농업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9

농식품 빅데이터(정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

- 농사에 필요한 정책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홍보에서는 업무계획, 분야별 정책, 정책자료, 디지털도서관, 청탁금지법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업무계획은 2019, 2018, 2017년도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정책에서는 농촌, 농업, 식량, 국제, 축산, 농생명, 유통, 식품, 방역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촌분야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지원, 농업인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경관보전직불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연금, 귀농귀촌, 농지은행사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 식량분야에서는 쌀 목표가격제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 국산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말산업육성 지원, 축산계열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개량지원 등
- 정책자료는 등록일자와 주제어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사에 필요한 정책동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 관측&동향, 글로벌정보, 열린마당, 연구원소개, 정보공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연구정보에서는 연구보고서, 학술지(농촌경제), 세미나·토론회 자료, 농정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측&동향에서는 농업관측정보, 임업관측정보, 농림어업고용동향분석, 농정동향,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관측정보에서는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사육) 가격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매월 제공하여 농가경영 안정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 임업관측은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 조경수의 단기 시장동향을 조사하여 발표
 - 농정동향은 KREI 논단,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농정소식을 확인
- 글로벌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중국농업정보, 북한농업정보, 해외곡물시장동향, 농축산물수입동향(FTA)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KRE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 large featured article about the '2018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2018 Quality of Life Improvement Policy Conference), a section for '연구정보' (Research Information) with thumbnails for various reports, and a '주안점' (Focus) section. The right sidebar contains links to '보도자료' (Press Release), 'KREI논단' (KREI Forum),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Weekly Agriculture, Rural, and Food Trends), and '재원공고' (Funding Announcement).

청렴한세상 - 다 가진 남자(2)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VOL. 229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